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 나타난
자연성의 의미와 도덕성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洪 錦 姬

洪錦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 나타난 자연성의 의미와 도덕성

洪 錦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토마스 하디의 초기 대표작인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 (*Far From the Madding Crowd*)에서는 한 여자와 세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자는 승리하고 자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타공멸의 운명에 직면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Gabriel은 자연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며 다룰 줄 아는 인물이고 Troy는 외부 유입자로서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좇아 사는 인물이다. Boldwood는 부와 지위와 지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Bathsheba가 장난으로 보낸 편지로 인해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 Bathsheba는 마음에 들면 누구나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사는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약점인 허영심, 변덕, 충동, 그리고 비현실적인 인생관 때문에 Troy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Boldwood의 관심을 받으나 그의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Bathsheba는 그녀에게 무서운 집착을 하는 Boldwood와의 관계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Troy와의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 Gabriel은 그녀가 여성의 약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해하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해결해주면서 Bathsheba에게 도덕적 감화를 줌과 동시에 그녀와 결혼하는 승리를 얻는다.

본고는 이 작품에 나타난 4가지의 자연, 즉 법칙으로서의 자연, 인간의 본성인 충동으로서의 자연, 기술로서의 자연,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알아보고,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다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인 Gabriel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자연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타인에게 감화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동적인 인물의 대표자인 Bathsheba를 통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소모적 애정관계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연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면서 자연에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릴 때, 도덕적인 감화를 주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Troy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좇아 살거나 Bathsheba처럼 무의식적으로 즉흥적인 욕망에 끌려 살게 되면 파멸에 이르는 반면, Gabriel처럼 자연과의 접촉을 잃지 않고 교감하며 살아야 자연 속에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고 이에 순응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연구하고 수정하며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외부적 환경으로서의 법칙적 자연을 이해하여 자연과 교감하고, 인간 내면세계의 욕망을 잘 이해하여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면서 인간과 교감하며, 공동체적 자연에 조화롭게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다. 또한 간간히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치료책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동적 능동성'의 자세임을 보여준다. 이는 '내재의지'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지만, 이런 무자비한 운명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절제(learn not to desire)로 깨끗하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서 고귀함을 느끼게 되고 타인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다.

목 차

I. 서 론	1
II. 토마스 하디의 자연관	7
III. 자연성과 도덕적 감화력	11
1. 법칙적 자연(Nature-as-law)	12
2. 충동적 자연(Nature-as-impulse)	17
3. 기술적 자연(Nature-as-art)	28
4. 공동체적 자연(Nature-as-community)	36
IV. 결 론	43
참고문헌	47
Abstract	49

I. 서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는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로서 비관주의자 또는 운명론적인 허무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중산계급이 큰 세력을 차지하였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물질적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지배 계급으로 등장한 중산계급이 표방했던 물질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심각한 모순과 병폐를 드러냄에 따라, 이 시대의 소설가들은 산업화에 따르는 사회변화에 대하여 대체로 저항과 경계의 태도를 취하였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기존질서의 파괴에 대하여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 하디는 번영하는 빅토리아 시대 이면의 부조리를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여 인간의 고뇌를 비극적으로 그린 작가이다. 하디 작품의 인물들이 비극에 처해진 것은 인생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 때문이었다. 하디는 인생을 고뇌의 연속으로 보았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며 노력해도 인간은 거대한 운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어서, 그의 진지한 염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디의 초기 작품에 비해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비관적인 색채가 더해지는데, 그 불행의 요인으로는 '내재의지'(Immanent Will)라고 불리는 자연, 성격, 본능, 사회 제도를 들고 있다.²⁾ 그의 대표적인 4대 비극 중에서 『귀향』(*The Return of the Native*, 1878)은 이그던 히스(Egdon Heath)라고 하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극적 주인공들의 파멸을 그리고 있고, 『캐스터브리지의 시장』(*The Mayor of Casterbridge*, 1886)은 성격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는 Casterbridge의 시장의 생애를 그렸다.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에서는 사랑의 본능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운의 주드』(*Jude the Obscure*, 1896)에서는 초기 작품들의 자연세계를 벗어나 변화해 가는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사회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인 『비운의 주드』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육체와 정신의 처절한 싸움이 가장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

2) 김철수, 「Thomas Hardy 소설에 나타난 운명의 대행자」, 『영어영문학』 제28권 4호 (1982), 646.

다. 이러한 것들이 나약한 인간에게 작용하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시키는 대로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는 게 대부분의 작품 스토리이다.

그의 이러한 인생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생의 대부분을 지낸 영국 남서부 지방의 특이한 자연환경과 당시의 농촌사회의 정황이다. 하디가 살던 지방은 거칠은 히이스(heath) 나무가 무성하여 인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황무지가 펼쳐져 있고, 구시대의 관습과 미신이 남아 있어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뒤늦게 찾아온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그 결과 영국 농촌의 오래된 공동체적 삶의 패턴과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전근대적 삶의 리듬이 비교적 늦게까지 보존되어 있었다. 그가 살았던 농촌에는 사회 변화와 자연의 변덕 앞에 내동댕이쳐진 힘없고 무식한 무리들이 살았고 그들이 환경 앞에 무력함을 느끼며 겪는 생활상은 비극적이었다. 이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어려서부터 익히 보아온 하디는 농촌의 옛 풍습, 노래, 이야기가 잊혀지고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는 사실을 보며 아쉬워했다. 특히 인간과 거대한 자연환경 사이의 부조화를 인식한 그는 자연 앞에 마주선 인간, 즉 거칠고 적대적인 자연의 위력 앞에서 힘겨운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 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뇌하는 인간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애정과 연민어린 눈길로 인생의 불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토리 이면에는 동정과 연민이 흐른다. 그러기에 더욱 감동을 주는 것이다. 하디가 50년 동안 신을 찾으려 갈구했던 것도³⁾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하디는 당대의 자연과학 특히 다아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적자생존의 법칙에 휘말려 있고,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과 파멸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의식이 없지만 인간은 의식을 지닌 존재이므로 만약 희망이 있다면,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내재의지와 자연의 법칙은 인간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인간의 도덕성에 의해 이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결코 비관론자나 운명론자가 아니다. 그 역시 비관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다⁴⁾. 비

3) Florence Emily Hardy, *The Life of Thomas Hardy 1840-1928* (London: Macmillan Press, 1982), p. 224.

관론적 운명론은 삶에는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산다는 자체가 비극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선론'(meliorism)은 비록 삶이 우울하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미래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삶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개선론자(meliorist)라 할 수 있다.

하디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운명과의 관계에서 비극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비극을 운명의 탓(determinism)으로 돌리지 않고 인간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⁵⁾ 결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간에 대한 운명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운명의 희생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는 개인이 비록 제한된 자유의지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개인의 이상(ideal)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연민의 정을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에 이바지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주인공들을 통해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인물을 비극적으로 만든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작가이다. 그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비극의 요인들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디는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여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⁶⁾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다른 미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아울러 욕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 때로는 내재의지에 지배되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지만 하디 자신이 통찰한 삶이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보다 좋은 것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길을 직시하는 속에 있다.(If a way to the better there be, it exacts a full look at the worst.)”⁷⁾는 신념을 가지고 현실을 솔직히 인식하고 탐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비극적인 인물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제공해주지 못한 채 끝없는 투쟁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어 불운한 종말을 맞도록 한다. 그는 극도로 비참해지는 인물

4) F. B. Pinion, *A Hardy Companion* (London: Macmillan, 1968), p. 178.

5) Jeannette King,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Cambridge UP, 1978), p. 34.

6) *Ibid.*, p. 35.

7) James Gibson, *The Complete Poems of Thomas Hardy* (London: Papermac, 1981), p. 168.

을 보여 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인물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또한 해결책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조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갖자고 역설하는 듯이 보인다. 결국 그의 작품이 비극이든 희비극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지켰다고 할 수 있다.

하디는 고통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향상은 물론, 타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인물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이상(ideal)이 공동체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극이 생긴다. 이러한 불의와 혼란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인식할 때 인간에 대한 연민(compassion)이 더해진다.⁸⁾ 특히 하디 작품의 인물들은 운명의 대행자인 자연과의 부조화로 인해 비극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양상은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Far from the Madding Crowd*, 1874)라는 초기 전원소설에서 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하디의 초기 작품에 속하면서도 하디 문학의 대체적인 경향과는 다른 작품이다. 그의 장편소설 대부분이 비관적 색채가 짙어 어둡고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한결같이 주조를 이루는 반면, 간간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낙관적으로 끝나는 소설인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는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던 비관주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이 출간되자 자연과 농촌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사실주의 수법의 묘사와 권선징악적 해피 엔딩을 요구했던 당시의 대중적 취향에 맞아 크게 성공하여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굳힌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Gabriel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하디의 개선의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을 제시하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디의 이상적인 인간형인 순결한 여성으로서의 Tess, 극기를 미덕으로 갖고 있는 『숲의 사람들』(*The Woodlanders*, 1887)의 Giles와 달리, Gabriel은 기독교적 인물(Christian character)로서 자연에 대해 조화

8) King, p. 34.

를 이루고 인간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하디는 이 작품을 쓸 때, 포켓북을 가지고 다닐 때엔 사하라 사막같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종종 마른 나뭇잎, 버려진 나무껍질, 돌조각에 썼다고 한다.⁹⁾ 이로 보면 하디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하디의 분신인 Gabriel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자연에 적응하고 화합하여 사는 Gabriel의 도덕성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내재의지의 비참한 희생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화합하고 사는 인간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하디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개인은 인류라는 한 몸통(corporeal frame)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고통은 공동체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인식할 때 이타주의(altruism)가 생겨난다고 했다.¹⁰⁾ 하디는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 개인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이타주의가 될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이라 보았다. 이런 인식이 하디로 하여금 Tess, Jude, Giles, Gabriel과 같은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다. 이들 대부분이 비극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개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 Gabriel은 때로는 비극적인 경험을 했지만 죽음을 통하지 않고 현실세계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인물이다.

Gabriel은 자연을 이해하여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그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제할 줄 아는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나은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제력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순한 억누름이고 비판적인 지성의 회피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의 도덕성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인간이긴 하나 자연을 이끄는 적극성이 모자라고 자기 주관 없이 보여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Gabriel은 그의 지성(intelligence)을 이용하여 자연을 다스리고, 감성(sensitivity)을 이용하여 욕망을 다스리며, 기술(skill)을 이용하여 자연을 인간에 이롭게 사용할 줄 아는 내적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사회성(sociality)을 이용하여 공동체와 조화롭게

9) Emily Hardy, p. 96.

10) *Ibid.*, p. 224.

지내는 인물로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지닌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하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Gabriel임을 시사하는 듯하여 이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하디는 일기에서 “작가의 임무는 위대함 밑에 숨어있는 보잘 것 없음(sorriness)과 아울러,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물과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 (grandeur)을 보여주는 일이다.”¹¹⁾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보잘 것 없는 개인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보편적 차원의 것으로 승화시키고 인간을 좀 더 도덕적인 존재로 고양시키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불행을 경험한 자만이 참다운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의 목적은 인간의 현재의 불행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발견하여 인간의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려 함이다¹²⁾.

따라서 본 논문은 II장에서 하디의 자연관을 통해 그의 작품에서 주로 비극으로 작용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비극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자연, 즉 법칙, 충동, 기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시골의 성실하고 깨끗한 젊은이인 Gabriel이 이러한 자연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도덕적 감화를 주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Bathsheba에게 영향을 주어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이타적 성향을 띤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디의 개선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작품에 담겨있는 개선론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하디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수정하고 하디 문학의 비극적인 요소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이 논문의 목표로 삼고자한다.

11) *Ibid.*, p. 171.

12) *Ibid.*, p. 383.

II. 토마스 하디의 자연관

과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자연주의 문학은 전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당시 낭만주의가 과도하게 정서와 상상력을 강조하여 지나친 감상주의로 빠져들고 허황된 이상의 세계만을 추구하게 되자 자연주의는 이에 반기를 들고 물질주의, 실증주의 사상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실주의 영역을 넓혀 보려고 했다. 자연주의는 다아윈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을 위하여 계속되는 투쟁을 한다고 보고, 인간을 유전,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 동물로 간주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인간에게서 모든 자유의지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동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물리적 힘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은 막연한 자연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 서서 헤맬 뿐이고, 이 자연의 힘이 바로 하디 문학에서 '내재의지'라는 중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주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즉 인위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 성질, 현상을 '자연'(nature)이라 부르며 이러한 자연은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의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본능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물적 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을 이상화하던 낭만주의자와는 대조적으로, 위기나 성적 충동의 자극이 있을 때 인간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원시적 야수성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자연주의적 인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디의 자연에 대한 인식도 자연 속에서 밝고 희망찬 세계관을 추구한 낭만주의자와는 달리, 칙울하고 비극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그렇다고 낭만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자연에 대한 심미감은 그의 작품 속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하디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자연의 이면에 도사린 생존경쟁의 어두운 그림자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쇠퇴해 가는 희망의 잔재를 통찰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인간의 비극은 그의 소설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연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디의 작품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로써 인간의 도덕성을 주관하여 특수한 목적을 성취한다.¹³⁾ 하디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고통이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에 잘 적응하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화론적 도덕성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하디는 모든 현상의 원인이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덕과 무관한 것(neither moral nor immoral, but unmoral)”임을 알았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선도 악도 아니고 ‘내재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이상,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부질없고 인간의 생활이란 단순히 ‘내재의지’와 싸우다가 패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인간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도덕적인 감각(sense)을 갖고 있지만, 이를 지배하는 힘은 도덕성이나 양심 없이 움직여, 도덕적인(innocent) 인간에게 성공을 안겨주기보다는 비극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¹⁵⁾, 도덕성과 무관한 뭔가가 있어 우주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하디의 운명론(fatalism)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커다란 거미줄의 어느 한 가닥에 배치되어 있어 매달려 있는 것과 같고, 그 거미줄 꼭대기에는 ‘운명의 힘’이 있어서 그 힘이 거미줄을 당기거나 찢거나 하기 때문에 인간은 속절없이 그 힘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¹⁶⁾ 그래서 하디는 비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 비극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명의 탓으

13) D. H. Lawrence, *On the Study of Thomas Hardy* (New York: Viking P, 1968), p. 415.

14) 김규연, 「Thomas Hardy의 자연과 인간」, 『영어영문학』 제37권 1호 (1991), 172.

15) King, p. 34.

16) Emily Hardy, p. 177.

로 돌리지 않았다. 인간에게도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도덕성으로 미약하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디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과거에도 고통은 있었고 현재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그 고통을 경감하려면 자연을 연구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공리주의 철학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과 같은 견해를 갖는다.¹⁷⁾ 이는 자연을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연에게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균형 잡혀있어 중립적이고 인간사에 무관심하며 이런 자연의 힘에 의해 빚어지는 현실적 상황은 냉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디의 작품의 인물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그대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 더 나은 상황으로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는다. 이런 행복과 자기만족을 향한 열정이, 생존경쟁에 있어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한 바로 그 생명력(life force)이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에 의해 좌절되는 인간의 삶을 펼치고 있지만 우주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박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극복의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하디는 인간의 불굴의 투쟁을 통해 다아윈 식의 적대적 자연에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그의 비관적인 자연관에서 낙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¹⁸⁾ 하디의 문학이 내재의지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무자비한 운명에 대해 불타는 투쟁을 계속하는 고매한 인간상을 그린다. 이런 양상을 잘 나타낸 작품이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Gabriel을 통해서 원치 않는 비극 속에서도 곳곳이 견뎌내어 그가 원하는 운명을 맞이함으로써, 세상은 극기하며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아름다운 목가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적대적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업을 위한 일터로서의 공동체적 자연도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자연에 대해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17) *Ibid.*, p. 14.

18) King, p. 34.

19) 장정희. 「토마스 하디의 『숲의 사람들』과 목가」, 『근대영미소설』 제3집 (1996), 220.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작품의 중심 주제다.

하디가 창조한 인물인 가브리엘 오크(Gabriel Oak), 밋세바 에버딘(Bathsheba Everdene), 트로이 중사(Sergeant Troy), 대농장주 볼드우드(Farmer Boldwood), 패니 로빈(Fanny Robbin)등은 성장이나 출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태도가 다양하지만, 모두 변모되어가는 시골 농촌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사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대개 자연에 순응하는 자, 반항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자연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인 Gabriel에게는 우호적임에 반하여, 자신의 환경에 반항하는 자인 Troy와 Boldwood에게는 적대적 존재로서 나타난다.

하디는 인간의 삶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자연은 그의 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디 작품의 주인공들은 인간에 작용하고 있는 자연을 경시함으로써 비극적 인물이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개인의 비극뿐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하디 작품의 인물들은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며 무자비한 자연 속에 던져진 그들의 몸부림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Gabriel과 Bathsheba는 주변 환경과의 충돌에서 파멸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휴머니즘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도 지위도 명망도 없는 Gabriel이 그를 둘러싼 자연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겨내며 감화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연성과 도덕적 감화력

하디는 불행과 고통을 종말로서가 아닌 도덕적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그래서 쓰러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Gabriel에게 어려움을 주며 시련을 겪게 한다. 이 시련은 주로 자연에서 비롯되는데 이 자연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한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칙적 자연(nature-as-law), 충동적 자연(nature-as-impulse), 그리고 기술적 자연(nature-as-art)이다.²⁰⁾ 법칙적 자연은 모든 자연현상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서 외부세계에서 작용하는 창조적이고 조정적인 힘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속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둘러싼 물질세계에 작용하는 물리학적 개념과 통한다. 충동적 자연은 인간과 동물에 내재해있는 충동적 본능으로서, 이에 의해 성격이나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며 때로는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심리학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 기술적 자연은 인간의 목적 또는 자연의 운행 목적에 맞게 자연을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기술(art)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와 예술의 개념이 아니라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Gabriel이 적응하고 다루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자연이 있다. 그것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적 자연이다. 공동체는 맹목적, 이기적 투쟁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연대적 삶의 형식을 포함하는 사회학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

소설의 인물을 자연에 대한 관계로 구분해 보면, Bathsheba, Boldwood, Troy는 충동적 자연의 대표자이며, Gabriel은 기술적 자연의 대표자로 본다. Gabriel은 인간의 숙련된 솜씨와 지혜로 법칙적 자연을 파악하여 그에 대처하고, 충동적 자연을 이해하여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잘 다스려 나간다. 이 작품에서는 Gabriel이 네 가지 측면의 자연을 다스릴 때 지성과 감성을 이용하여 자연의 운행 목적과 인간의 목적에 맞

20) Peter J. Casagrande, *Unity in Hardy's Novels* (London: Macmillan, 1982), p. 98.

게 자연을 개선하는 기술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을 보여주고, 그와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계층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이타주의적인 도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칙적 자연

물리학적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자연’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결과에 따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자연에는 불변성이 있는데, 이는 2장의 노콤 힐(Norcome Hill)의 묘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황량한 툰러 고원에서 별로 멀지 않은 노콤 구릉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불멸의 존재 앞에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장소 중의 하나였다. 그 곳은 백악질과 흙으로 된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하게 볼록한 모양의 산이다. 즉 훨씬 더 웅대한 높은 고지와 눈이 부실 정도로 우뚝 선 화강암의 절벽 등이 무너져 떨어지는 천지개벽의 날이 찾아와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은, 말하자면 대지의 표면에 돌출한 용기의 흔해 빠진 표본과 같았다.²¹⁾

변화가 많은 인간의 짧은 삶과는 대조적으로 Norcome Hill은 어떠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장엄하게 서 있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불멸의 존재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결국 자연의 광대무변한 크기와 위엄에 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이기에, 인간이 자연의 힘에 지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하디는 인간이 만든 문명 세계를 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으로 자연세계를 불변성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연은 불, 폭풍우, 물 등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 인간들을 비극적인 상황에 빠뜨린다. 특히 이러한 자연력은 자연에 반항하는 인물들에게 더욱 더 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디에게 있어서 자

21) Thomas Hardy, *Far from the Madding Crowd* (Harmondworth: Penguin Book, 2000), p. 8. 이후부터 이 작품의 인용문에 대해서는 인용문 뒤에 chapter와 page number만 표기하기로 한다.

연의 지배적인 힘은 맹목적이고 무정한 것이다. 이런 자연의 힘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우주 속에 내재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의지의 소유자인 '내재의지'라고 보고 있다. 내재의지의 대행자인 자연은 거대한 힘을 지닌 자로 나타나며 인간들에게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적대적인 자연의 모습은 36장과 37장의 폭풍우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력인 폭풍우는 거대한 힘으로 인간의 삶을 좌우하면서 인간을 비극적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 Troy의 결혼 축하연으로 술에醺아떨어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밤은 불길한 징조로 폭풍우의 내습을 알리고 있다. 지구를 삼켜버릴 것 같은 폭풍우의 징조에 온통 어두움과 두려움에 싸여있다. 이제 자연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고 낭만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무시시한 적대적 존재로 변하여 온통 살벌하기만 하다.

양들은 저편 담장 밑의 바늘 금작화가 무성한 곳에 짝 붙어서 무리지어 있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이상한 점은 오크의 머리가 생 울다리 맞은편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도, 양들은 법석거리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 인간보다 더욱 큰 것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양들은 모두 한 마리 예외도 없이 폭풍우가 올 것 같은 지평선 한가운데로 꼬리를 향하고 무리지어 있었다. 자연계의 온갖 소리가 힘을 모아 폭풍우의 내습을 예언하고 있었다. (36장 212-213)

양들이 인간보다도 더욱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에 겁을 먹고 공포로 떨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바로 이것은 자연력인 폭풍우로 나타난 내재의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주에 내재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의지의 소유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말한다. 즉 악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불행과 고뇌를 조절하는 비극의 조종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Gabriel은 두꺼비, 양과 같은 자연의 미물을 통해 폭풍우 조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방수천, 피뢰침을 준비하여 곡식의 손실을 줄인다. 그는 자연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폭풍우의 도래를 유일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비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폭풍우 속에서 Bathsheba의 농장의 곡식을 보호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여자에게만 관심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옥수수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변덕으로 일년간의 노력의 대가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무서운 자연력의 위협을 피할 길을 모색한다. 그는 옥수수에 관심을 갖고 상업적인 계산을 하는 것을 볼 때 현실도 소중히 여기는 실리적인 면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돈이라는 것이 취득할 수 있는 제일 고상한 형태 즉 인간과 동물에게 꼭 필요한 식량이라는 형태를 한 750파운드였다. 이 막대한 곡물이 단 한 여자의 변덕 때문에 절반 가격 이하가 되어 버리는 큰 손해가 일어나도 좋을 것인가?(36장 213)

Gabriel이 돈으로 750파운드의 가치를 갖는 식량을 한 여자의 변덕 때문에 절반 가격 이하가 되어 버리는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보더라도 그는 Bathsheba처럼 환상을 좇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랑이었기에 지성을 사용하여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고 폭풍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막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적재적소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타인도 파멸시키지 않고 살리는 좋은 결과(desired effect)를 얻었다고 본다.

반면에 Troy는 폭풍우가 오는 조짐을 소홀히 여겨 축제를 연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폭풍우가 다가왔고 Troy는 농장경영에 무관심한 채, 쾌락을 좇아 방탕하게 사는 감각주의자였기 때문에 폭풍우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인다. 이 폭풍우 장면에서 Bathsheba는 Gabriel의 자연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의 위대함과 성실성을 깨닫는 동시에, 남편인 Troy의 비현실성, 무능력을 발견한다. 이 두 인물의 대조로 Bathsheba는 Gabriel을 더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태풍 속에서 Bathsheba와 Gabriel은 합심해서 곡식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장면에서 가장 에로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둘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또한 Bathsheba는 Troy와의 결혼 경로를 설명하면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다. 남편인 Troy가 결혼 전에 사귀던 Fanny와의 관계를 알았을 때 Bathsheba는 Gabriel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면서 상담하게 된다. 그만큼 그가 객관적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Gabriel은 Bathsheba에 비해 수동적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첫 번째의 위기 장면에서 오두막집에서 문 닫은 채 잠자다가 질식할 뻔 하여 Bathsheba의 도움으로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협조적이고 남성적 힘도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그가 이렇게 성숙된 도덕성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좌절된 경험을 통한 깨달음 때문이다. 첫 번째 위기 장면에서는 Bathsheba의 도움으로 살아나지만 두 번째의 시련은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

두 번째의 시련도 '잠'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의 양 치는 개가 양을 절벽으로 몰아 모조리 몰살시킨다. 이로 인해 Gabriel은 전 재산을 잃어 파산된다. 그도 양이 몰살되기 전에는 양들이 살찌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의도한 바와 달리, 잠, 망나니 개, 약한 울타리, 절벽으로 인해 양이 몰살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전원의 왕이 악취 나는 싯딤 계곡(the slime-pits of Siddim, Gen. 14:10)으로 추락한 것과 같은 처지가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위엄과 운명에 대한 초연함이 나타나 그를 더 위대하게 한다. 자연이 Gabriel에 반해 심술궂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단지 원인에서 비롯된 사실만 있을 뿐임을 깨닫고, 그 법칙에 따라 일보 후퇴하면서 이보 전진하는 삶의 의욕을 보인 것이다. 그는 양들을 전부 잃어버려 빈털터리가 되고 Bathsheba에게도 구혼을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지만, 여기서 인생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6장에서 Gabriel은 양이 몰살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의 법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떠난다. 그는 또 한번 짐마차에서 '잠'을 자다가 Weatherbury에 있는 Bathsheba의 농장에서 마침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진압에 앞장선다. 양의 몰살을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잘 파악하여 밀가리 밭의 바람을 막고 덮개천으로 연기 통로를 막아 불길이 밀가리 밭으로 번져가는 것을 멈추게 하면서 실패할 요인을 없애며 화재를 진압한다. 이리하여 화재를 진압한 대가로 Bathsheba의 농장에 고용된다. 여기서 '잠'은 Gabriel이 그의 운명을 따라서 깊은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매개가 된 셈이다.²²⁾

Gabriel은 Bathsheba의 농장에 고용된 후 대담하게 행동을 한다. 그녀가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Troy에게 애정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질투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한다. 그리고 Troy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솔직히 충고하며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 이에 반해 Boldwood는 Bathsheba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으로 보낸 편지가 화근이 되어 농장도 돌보지 않은 채 사랑에 집착하고 급기야는 Troy를 사살하는 파국에 이른다. Bathsheba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두 남자의 경우를 볼 때, 둘 다 사랑을 거절당했지만 그 태도는 다르다. Gabriel은 그의 사랑이 거부되었음에도 자신이 파산되었을 때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위안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Boldwood는 농장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파멸 시킨다.²³⁾ 이처럼 Gabriel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초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반면, 그 외의 Boldwood나 Troy는 어려움에 처하면 극복하지 못한 채 무너져버린다. 이 경우는 Gabriel처럼 자연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도록 애쓸 때(Nature's will is man's will),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 선 것은 양이 몰살되는 경험을 통해 파멸되고 싶지 않으면 자연의 뜻을 파악하여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Bathsheba는 처음에 사랑을 힘의 논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Gabriel의 점잖음을 남성적 힘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 오인한다. 그러나 Gabriel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녀를 유순하게 하고 그를 의지하고 싶게 한다. 그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상호 존중함으로써 Bathsheba의 여성성을 강화시켜 참된 남성적 힘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Gabriel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목표인 Bathsheba와의 결혼도 성취하고 추구하지 않았던 Boldwood의 농장과 Bathsheba의 농장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Gabriel은 다아윈 식의 자연선택 이론에 맞게 현대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자이고 그래서 살아남는다. Gabriel은 이타주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이상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이상과 현실이 균형 잡힌 사람이기에 『귀향』의 Clym Yeobright처럼 실패한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숲 속의 사람들』의 Giles처럼 여자에 대한 구애가 우유부단하지도 않는다.

22) Robert Langbaum, *Thomas Hardy in Our Time* (London: Macmillan, 1995), p. 92.

23) Lance ST John Butler, *Thomas Hardy* (London: Cambridge UP, 1978), p. 24.

Gabriel은 하다가 창조한 인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이다. 그는 전원적 인물로서 플루우트를 잘 부는 양치기이며 별을 보며 시간을 알아낼 정도로 자연과 교감할 줄 아는 인물이다. 그는 하다가 추구하는 이상형으로서 지성(intelligence)을 사용하여 자연의 법칙을 잘 파악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삶에서 배양된 지식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적인 도덕성을 지닌 인물이다.

2. 충동적 자연

이 작품에서 빚어지는 비극의 원인은 주로 충동적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 있다. 지금까지 ‘자연’하면 외부에서 오는 환경으로 여겨졌다. 즉 법칙적 자연이라 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충동적 욕망 때문에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을 희롱하는 운명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에서도 올 수 있다. 자신의 충동성과 본능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받아 애정관계가 평탄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되는 Bathsheba가 그렇고, 그녀를 사랑했던 Troy와 Boldwood도 마찬가지다. 충동적 자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Bathsheba는 소모적 애정관계로 인해 고통을 겪음으로써 한층 성숙해지지만 표면적인 변화일 뿐, 여자로서의 약점은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충동적 성향 중 가장 부각되는 것은 허영심이다. 1장에서 그녀가 이삿짐을 실어 마차를 타고 Norcombe 구릉을 지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밀턴(Milton)의 『실락원』(*Paradise Lost*)의 Eve처럼 자아도취에 빠진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 속에는 사랑에 흠뻑 빠져 포로가 된 남자의 마음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보인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미소 짓는 행위’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자아도취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허영심은 자신에게 흠뻑 반한 Bathsheba나, 그녀에게 매료된 Gabriel 둘 다에게 비극의 원인이 된다.²⁴⁾ 그 이유는 Bathsheba의 모습을 처음 본 Gabriel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구혼을 하지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Gabriel은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4장에서 Bathsheba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Gabriel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24) Casagrande, p. 100.

“글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없이 신부가 될 수 있다면 결혼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란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흉내는 낼 수 없잖아요. 때문에 난 결혼하지 않겠어요.”(4장 54)

위의 인용문은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의 인생이 어떠한 지를 암시하고, 그녀의 비현실적인 결혼관과 독립된 자아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매우 독립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Bathsheba는 자기의 주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로 자유롭고 초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Bathsheba에게는 어떤 남자라도 겨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분방함과 대범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Troy의 유혹 앞에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Bathsheba는 Troy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군인의 외모에 반하게 된다. 또한 그의 가문과 지식에 더 매력을 느낀다. 그녀가 외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다. 이런 허영심은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감지하는 분별력을 잃게 한다. 그리고 이 허영심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힘도 잃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

그녀는 Troy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미인이라고 하는 아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Troy의 외모와 가문에 반하고부터는 그녀에 대한 호의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Troy는 과거에 가문이 좋았던 미남자로서 Bathsheba를 끌게 하는 성적매력도 있어 그의 아침은 그녀를 유혹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반해 Gabriel은 1장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을 아주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골라서 말해야 할 만큼의 특징은 하나도 없는 인물로 Troy만한 성적매력이 없다. 이런 외모는 허영심 많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녀의 이런 허영심은 Gabriel에게 더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게 한다. Gabriel의 물질적 빈곤과 하층계급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비애를 느끼게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더 괴롭히는 것은 그녀가 Troy에게 마음이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이다.

충동적 자연을 잘 아는 사람은 Gabriel처럼 판단력이 정확하고, Troy, Boldwood, Bathsheba와 같이 충동적 자연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우선하다 보니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Bathsheba가 Troy의 포로가 된 것도 욕망에 노출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capitulation)가 되는 여자로서의 본능 때문이다. 이 외에 물질의 현혹, 외모는 사람의 진실을 막는 좋은 방해물이다. Troy의 변칙이는 외모, Boldwood의 부와 지위는 Bathsheba로 하여금 가치관까지 착오를 일으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다.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한 첫 단계는 Boldwood라는 멋지고 위엄 있는 신사를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격식과 예의가 바른 신사인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Bathsheba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유일한 남자이다. 그의 이런 무관심에 대해 Bathsheba는 충동성이 발동하여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장난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게 화근이 되어 Boldwood는 그녀에게 집착한다. 이 때 Bathsheba는 그의 외면적인 냉정함 속에 가려진 어둡고 집요한 애욕을 발견한다. 그때서야 현실의 사랑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보았던 무지와 경솔함을 후회하며 그녀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어야 함을 깨닫는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사랑의 시련이다.

Boldwood는 Bathsheba를 만나기 전엔 능력 있는 농장주인으로서 정상적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장난편지를 받고서 Bathsheba를 이상화(idealisation)하여 집착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의 비극은 시작된다. Bathsheba는 이런 Boldwood의 집착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되고, 더욱이 그에 대한 연애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다. 이 때 그는 내면의 균형이 깨어져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신경증세(neurosis)를 보인다.²⁵⁾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가둬두고 일체의 배출구를 주지 않고 마음을 고독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다. Boldwood는 실연의 아픔으로 인해 자기 세계에 빠져 농장 일을 돌 볼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에 반해 Gabriel은 Bathsheba로부터 거부를 당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녀를 계속 도와준다.

Boldwood는 부유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 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모든 점에서 바람직했다. 그러나 그녀는 Boldwood가 결혼 상대자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인물이지만 함께 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Boldwood를 거부한다. Bathsheba가 그의 구혼을 거절한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고통에 대한 그의 반응은 광란에 가까웠다. 자기 통제, 현실세계에 대한 둔감함, 억압성에 통제가 풀리자 균형이 깨지고 아울

25) Rosemary Sumner, *Thomas Hardy: Psychological Novelis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p. 54.

러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파멸하고 만다.²⁶⁾

현실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Bathsheb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Boldwood라는 인간에 대한 무지와 현실의 사랑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밖에 보지 않는 경솔함 때문에 Boldwood의 광기를 유발하여 결국엔 Troy를 사살하여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녀는 자기가 무심히 던진 불씨가 우울하고 묵묵한 남자에게 뜨거운 정열의 온상이 될 줄 몰랐다. 그녀가 Boldwood의 기질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책임의 중대함에 섬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Troy를 만나기 전에 “결혼해 주세요.”(14장 87)라고 쓴 편지를 Boldwood에게 부칠 때까지만 해도,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지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녀가 현실을 인식하게 된 또 다른 경험은 Troy의 유혹에 빠져 시작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다. Troy와 결혼하고 그에게서 거절의 아픔을 겪은 후에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인간의 실체를 이해하게 된다. Fanny에게 받은 고통보다 자기 내면의 절대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다. Bathsheba는 이런 고통을 겪은 후, 비로소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녀의 애정관계로 인한 시련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간간히 벌어지는 어려움은 변덕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약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성향이면서 가끔 그로 인해 활력을 주기도 한다.

하디가 다룬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의 문제이다. 하디가 묘사하는 사랑은 특히 좌절된 사랑이다. Butler도 하디가 그리는 사랑의 문제를 통해 사랑은 획득하면 곧 권태를 느끼게 되고, 얻지 못하면 고통과 절망이 따르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세상일이란 게 소유했던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고 가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원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이다.²⁷⁾ 이 작품에서도 Troy는 Bathsheba와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는 곧 냉담해지고, Fanny가 그의 여자가 될 수 있었을 때는 땀을 들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Fanny가 죽어서 그의 여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는 Fanny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이런 모습에서 인간의 뜻과 반대로 작용하는 운명을 보게 된다. 여기서 비극이 생기는 것이다. Gabriel이 양치기로

26) *Ibid.*, p. 51.

27) Butler, p. 10.

서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을 때 실패하고, Bathsheba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욕망이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은 한 예이다.

그러나 결말에서 그녀 곁을 떠나려고 할 때 Bathsheba가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처럼 인간사는 항상 비극적인 것도 희극적인 것도 아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재의지의 영향으로 원인과 결과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의 움직임과 같아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재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일치하여 균형 잡힐 때만이 현상(the course of events)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²⁸⁾

내재의지는 인간의 소망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내재의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보 후퇴하여 욕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극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Learn not to desire)²⁹⁾. 따라서 Gabriel은 양이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실을 직면하고 그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음으로써 자연의 법과 욕망의 법을 잘 다스린다.

등장인물 중 욕망의 지배를 받는 대표적 인물은 Bathsheba이다. 이성적으로는 Troy가 방탕한 남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녀는 욕망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비극은 시작되었다. 특히 Bathsheba는 강한 성격의 젊은 여자기에 Troy의 상실로 인해 누구보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한다. Fanny는 죽었지만 실상은 Bathsheba가 살아서 더 처참한 아픔을 겪게 되니 Fanny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Bathsheba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 비탄에 빠질 만큼 빠진다. 그리고 양치식물 숲으로 가서 하루 밤을 보내면서 어찌다가 이런 사슬에 얽매이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본다. Bathsheba는 소모적 애정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추락하게 된다. 이러한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재해 있는 욕망 때문이다.

하디는 사랑의 욕망을 파괴적인 힘으로 보았다.³⁰⁾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무분별한 사랑을 한 Troy, 사랑의 집착에 빠진 Boldwood, 충동적인 사랑을 한 Bathsheba 모두

28) *Ibid.*, pp. 8-9

29) *Ibid.*, p. 7.

30) Tess Cosslett, *The Scientific Movement and Victorian Literature* (London: The Harvester Press, 1982), p. 158.

사랑의 욕망 때문에 비극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Gabriel은 사랑 때문에 더 낮게 된다. 그가 추구한 사랑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하디는 공통된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성숙하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강력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열정 이상의 평안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이 작품에서는 공동의 일에 기반을 두고 시련을 겪은 후에 맺어지는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³¹⁾

Gabriel의 경우 처음부터 욕망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도 Bathsheba에게 구혼을 할 때는 열정적(passionate)이었다. 그리고 부를 얻고 싶은 욕망도 있었다. 그러나 양의 몰살로 파산을 경험하면서부터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차라리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게 잘된 일이라고 위안하면서 욕망하지 않는 법(Learn not to desire)을 배우게 된다. 욕망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인간의 본능이다. Gabriel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평정을 찾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discipline)에 의해 가능하다. 이런 훈련은 젊은이의 열정을 받아들여 그것을 감수하고 천천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정신적 성장에는 욕망을 천천히 표출하는 이완(release)과 욕망을 받아들여 되 조심스럽게 통제하는 수용(containment)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³²⁾ 이는 Wordsworth가 말하는 몰아경지(wise passiveness)의 개념과 상통한다. 몰아경지란 자연과 교감을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한다. Gabriel은 이런 몰아경지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다.³³⁾

하디는 내재의지에 의해 인간의 운명은 달라진다고 한다. 자연도 내재의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자연을 거역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 즉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성을 잘 파악하여 내가 나 되도록 생명력 있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 자세와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

31) Butler, p. 8.

32) *Ibid.*, p. 52.

33) King,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Cambridge UP, 1978), p. 31.

야 한다는 '수동적 능동성'은 하디의 개선의 의지를 잘 대변한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Gabriel은 편견을 지닌 채 안락함을 추구하는 생활인(family man)도 아니고 충동적인 젊음의 성향을 가진 인간도 아니다. 그는 주어진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수동성과 젊음의 열정에서 볼 수 있는 능동성을 겸비한 '수동적 능동성(wise passivity)'을 지닌 인간이다.

하디는 완전히 수동적인 태도는 비극의 원인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성을 사용하여 수용(acceptance)과 적응(adaptation)을 통해 점진주의자(gradualist)처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³⁴⁾. 왜냐하면 자연은 사려 깊은 이해력(careful understanding)을 원하기 때문이다. Gabriel은 충동적 자연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서 자연과 몰아경지의 태도로 접근하여 자연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해 내고, 이를 통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표(guiding vision)를 제시하는 내적 능력이 있는 인간이다.

Gabriel 이외의 인물들은 지표가 없이 충동적 자연의 지배를 받는다. 먼저 Boldwood의 경우를 보면, 욕망을 억압하며 살 때는 평온한 인간처럼 보이나, 과도한 욕망의 지배를 받아 억압된 욕망이 분출될 때는 극단으로 치닫는 행동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이 잡힌 인간처럼 보이나 그것은 정체되어있는 상태일 뿐 자기 통제가 풀리면 극단적인 과멸로 치달을 수 있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다.

볼드우드의 생활은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그의 성질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그의 균형 상태가 깨져 버리면, 그는 즉시 극단으로만 달렸다. 한번 걱정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결국 그는 걱정의 포로가 되었다. 그를 지배하지 않을 때 감정은 완전히 그림자를 감추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정지(stagnant)나 질주(rapid)의 어느 한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는 항상 극히 심하게 당하든가, 아니면 소홀히 보아 넘겨지든가 그 어느 쪽 인가였다.(18장 105)

Boldwood의 감정은 아주 처져있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집착하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서 정상인이 아니다. 좋은 성향이든, 나쁜 성향이든 지나치면 신경질환의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Boldwood의 정적인(stagnant) 성향

34) Cosslett, p. 156.

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Gabriel의 정적인(static) 성향과 다르다. 둘 다 정적인 인물이지만 Gabriel에게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Boldwood에게선 불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Troy는 과거와 미래에 뿌리가 없고 삶의 기준도 없이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과 점진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는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서 예측을 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없다.³⁵⁾ 한편 Bathsheba도 신중함보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물이다.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향성 없는 자유의지로 인해 비극을 초래한다. 그녀의 과실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 행동을 통제하는 신중한 노력이 없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 그녀는 충동과 이성이 갈등할 때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비전이 필요한 데, 그녀에게는 Gabriel에게 있는 지표가 없어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³⁶⁾

욕망은 인간과 외부적 체계와의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의 갈등도 일으킨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과 싸우는 것이기에 삶의 지표 없이 사는 충동적인 인간에게서 이런 갈등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욕심이 많을수록 갈등은 더 커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 변덕도 심해진다. 그녀의 변덕은 Gabriel에게 Boldwood와 Troy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Boldwood의 문제로 고민에 빠진 Bathsheba가 조언을 구할 때 Gabriel은 Boldwood로 하여금 사랑에 집착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Bathsheba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질책한다. 이에 화가 난 그녀는 그를 해고시킨다.

이러한 변덕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부른다. Gabriel을 해고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양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른 채 쓰러져가는 양들을 보면서 배에 바람구멍을 내 줘야 살릴 수 있는데 마땅히 양을 치료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양의 전문가인 Gabriel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아요. 가브리엘!”(21장 123)이라고 쓴 편지를 Gabriel에게 보낸다. Gabriel은 그 편지를 받고 그녀의 변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양을 수술하여 살려낸다.

이 작품에서 인물 판단의 기준은 일의 능력이다. 양치는 장면에서 Bathsheba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한 것 때문에 Gabriel을 해고하기도 하지만, 그의 양을 치료

35) *Ibid.*, p. 157.

36) *Ibid.*, p. 157.

하는 능력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여성 특유의 교태를 부리면서 다시 불러들인다. 평상시는 나무라다가 필요할 때는 교태를 부리며 그를 찾는 이기적인 대우와 변덕이 Gabriel을 상심하게 하여 Gabriel도 파멸시킬 뻔 했으나, 낭만적 영웅답게 묵묵히 견디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나간다.³⁷⁾ 그는 Bathsheba를 냉정하게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³⁸⁾ 그래서 그녀를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다루기도 하면서 그녀의 변덕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녀는 약점 투성이의 여자이다. Casagrande의 말에 의하면, Bathsheba가 도덕적 발전을 한 게 아니고 하디가 여자의 약점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비합리성이 잠시 억제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의 말이 옳다면 이 작품은 잔소리 심한 여자를 길들이는 여자를 혐오하는 작가의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하디는 Howe가 말한 것처럼 여자를 혐오하지 않았다.³⁹⁾ Bathsheba는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디가 애착을 갖는 인물이다⁴⁰⁾. Bathsheba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만, 반면에 그녀는 충분히 사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다가도 자신의 약점을 깨달을 줄 안다.

그러나 제일 놀라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아침에 넘어가는 그 이상한 충동이다. Bathsheba처럼 강한 여자가 독립심을 버리고 욕망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약한 여성보다 더 사태가 악화된다. Bathsheba는 독립심이 강한 여자다. 그러나 Troy를 만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에고이즘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지가 약한 여성보다 더 급속도로 항복해 버린다. Bathsheba가 Troy에 대해 무기력했던 원인은 이런 사건에는 익숙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녀의 약점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두 배로 커지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익숙한 여자지만 사회라고 해도 매일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들이고, 상류사회의 날조된 취미나 하층사회의 상투적인 방자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Troy의 아침의 말에 대해서는 사리분별력보다 충동의

37) Anne Smith,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Vision Press, 1979), pp. 33-34.

38) *Ibid.*, p. 93.

39) Irving Howe,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85), p. 108.

40) Smith, p. 32.

힘이 우세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원초적 본능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Gabriel의 미온적인 사랑보다 Troy의 거친 사랑이 Bathsheba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다. 그녀는 Gabriel에게 “누군가가 나를 길들여주길 원해요.”(4장 28)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힘의 논리로 잘못 인식했다. 그래서 Troy의 검술 시범에 꼼짝 못한 채 그에게 길들여진다. 그러나 결혼 후 Troy는 농장경영에 무능하고 무관심하여 불화하게 된다. 결국 Troy와 Fanny의 관계가 폭로되자 둘 다 파멸에 이르는 비극적인 인물이 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에텐의 사과를 따먹은 Eve처럼 Bathsheba도 Troy의 군복과 견장의 화려함에 혹해서 그를 취하였지만 그 열매는 더 쓰기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말에 가서 Bathsheba는 히브리 식 비극으로 구원을 얻는데 반해, Troy는 그리스 식 비극에 처해 구제되지 않는다. 그녀는 Troy가 검술시범을 보여 줬던 양치식물 숲에서 털 자아중심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회복은 다음 날 아침, 소년에 의해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고 친구처럼 지내는 Liddy에 의해 지역 구성원간의 유대를 자각하여 융화하게 된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병든 마음이 치료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도 치유의 힘을 얻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자연에서 치유된 Bathsheba는 Troy도 죽고, Troy를 사살한 혐의로 Boldwood도 형무소로 가버렸을 때 끝까지 옆에 있어준 Gabriel과 결혼하게 된다. 그 둘의 결혼에서 화려한 예식은 필요 없었다. 이미 Gabriel과 마찬가지로 Bathsheba도 환경과 변화무쌍함에 대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소녀에서 여자로 성숙하게 되는데, 이는 Troy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Troy는 Bathsheba와 Gabriel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셈이 된다. 그녀는 Troy와의 소모적 애정관계로 인해 Gabriel에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⁴¹⁾

Bathsheba는 Troy처럼 Fanny에 대한 죄책감으로 잘못을 일시적으로 뉘우치다가 그만 두는 게 아니라 그녀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내적인 변모를 이룬다. 또한 그녀는 양치식물 숲에서의 깨달음 이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과오를 돌이키면서 두문불출한 채 지낸다. 여기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에 눈물 흘리며 인내를 배운다. 한편 Troy는

41) Robert Langbaum, *Thomas Hardy in Our Time* (London: Macmillan, 1995). p. 88.

Fanny의 죽음에 비싼 묘비를 세워 줌으로써 Fanny에 대한 죄책감을 씻으려 한다. 그러나 곧 그의 한탄을 그만 둔다. 그의 Fanny의 묘에 화초를 심었으나 운명이 그를 희롱하는 듯 그의 화초는 빗물에 씻겨가고 그의 회한은 거기서 끝난다.

그는 돌아온 Madding Crowd로서 Weatherbury의 토박이이지만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잡담거리나 되는 소외된 인물이다. 이는 공동체에 뿌리가 없고 책임감 없는 군인으로서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결과를 생각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사는 충동적인 인물이기에 Bathsheba처럼 지속적으로 더 나은 도덕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분별한 삶을 산다. 그리고 Troy는 세련된 말솜씨와 칼솜씨를 여성을 제압하는데 사용한다. 이에 비해 Gabriel은 그의 칼 솜씨를 양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언변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Bathsheba를 격려하는 데 쓴다. Bathsheba는 이런 Gabriel의 진가를 나중해야 깨닫고 그와 결혼한다. 물론 상부상조하는 관계로서의 결혼이다. 이처럼 그녀를 이기적인 성향에서 이타적인 성향으로 성숙하게 한 사람은 Gabriel이다. 하디는 두 사람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이 의지가 되는 친구 사이에는 새삼 아름다운 말이나 따사로운 말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애정은 처음에는 서로의 거친 성격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여 그 애정이 엄하고 단조로운 현실의 틈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점은 훨씬 후에 이르러서 겨우 알게 되는 견실한 애정이었다. 보통은 공통된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 좋은 친구애에서는 공교롭게도 남녀 간의 애정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남녀는 서로의 노동을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단지 그들의 쾌락을 통해서만 맺어지기 때문이다. 우정은 죽음과 같이 강력하고 유일한 사랑-아무리 많은 양의 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로도 빠지게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흔히 애정이라고 불리는 정열은 증기처럼 덧없다.(56장 348)

그들이 간간히 나누는 대화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농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결혼은 여자의 종속개념이 아니라 우정의 관계이기에 우정과 같은 결혼에선 미사여구나 허풍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애정은 서로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기에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는 죽음과 같이 강력한 사랑이 된다. 이것과 비교하면 쾌락에서 비롯된 애정(passion)은

수증기처럼 덧없다. 이렇게 우정에서 성숙해진 강력한 사랑은 모든 허물도 감쌀 수 있기 때문에, Bathsheba의 약점을 아는 Gabriel 앞에서 그녀는 사랑하기 위해 또는 사랑받기 위해 도덕적으로 완전할 필요는 없다. 그녀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는 Gabriel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Gabriel과의 결혼도 Gabriel이 떠나면 농장관리는 어렵게 되어,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이익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이기심에 근거를 두고 결혼을 허락한 면도 있겠지만, Gabriel과 결혼하여 함께 농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우정에서 비롯된 강력한 사랑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Boldwood와 Troy의 사랑은 광적인 사랑이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Gabriel의 사랑은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 것이었다. Boldwood와 Troy와의 소모적인 애정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내면의 정신적 성숙이 없었기에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광적인 사랑이 되었다. 결국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제거하여 둘 다 과멸함으로써, Gabriel처럼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만이 안정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또한 인간다운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술적 자연

하디는 J. S. Mill이 'Nature'에 대한 에세이에서 쓴 자연관에 영향을 받았다. Mill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art)은 그 목적이 자연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자연에서의 활동을 말하고 인간의 의무는 넓은 의미에서 기술자(artist)가 되는 것이며, 기술자는 자연을 모방하고 따르기 보다는 자연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⁴²⁾ 다시 말해서 기술(art)은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원용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하는 것이다.⁴³⁾

하디와 Mill의 공통점은 자연을 유기적 조직체라고 보며 인간의 행동은 물리적 혹

42) Casagrande, p. 98.

43) *Ibid.*, p. 109.

은 정신적 법칙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써, 기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면 우선 자연과 교감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과 같은 전원소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은 『귀향』의 Thomasin이나 『숲 속의 사람들』의 Giles처럼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인물이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서는 Gabriel이 자연과 교감을 하며 사는 인물이다. 그는 바람소리가 성가처럼 들리고 별들의 반짝임이 인간의 맥박 치는 고동소리로 생각되며 지구의 자전을 민감하게 느낄 정도로 그의 신체와 정신에는 자연이 침투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작품의 주인공과는 달리 플루우트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에서 그가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그가 양을 돌보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인해 평온함이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자연과의 어울림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처럼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함양을 추구하기에,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그의 도덕성은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 그는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고 꾸밈없는 자연 상태로 다닌다. 여기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자연 친화는 가식이 없고 진실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노동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몸에 익힌 지혜가 있다.

그는 화재가 났을 때도 법칙적 자연을 잘 이해하여 혼란스런 일꾼들을 지시하면서 불을 끄는데 한 몫 한다. Gabriel은 양들이 식중독을 일으켜 그들이 마신 독기와 바람 때문에 가슴이 비대해진 채 뒹굴고 있을 때도 배에 바람구멍을 내줌으로써 양들을 구한다. Gabriel은 구급용 도구, 침을 외과 의사처럼 잘 다루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양을 살리는 좋은 일에 사용한다. 그는 약한 인간이지만 도구를 사용해 자연력에 대처함으로써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과 식중독에 걸린 양을 살리는 방법은 Mill의 인간의 의무에 대한 관점과 통한다. Mill은 도구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옮기고(moving things into certain places), 분리된 것들은 연결하고, 연결되어있는 것들은 분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한다.⁴⁴⁾ Gabriel은 이 방법으로 침으로 부풀어 오른 가슴에 구멍을 내고 타는 것과 아직 타지 않은 보릿가리사이에 방수천을 덮음으로써 내재해 있는 자연의 법칙과 힘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그는 플루우트 연주자, 화재 진압자, 양

44) Casagrande, p. 110.

을 치료하는 자로서 자연의 법칙을 잘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는 이런 지혜로 폭풍우 장면에서도 영웅적인 행위를 완수했다. 자연 환경이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으로부터의 위기에 대처한다.

법칙적 자연은 민달팽이와 두꺼비를 보내면서 심상치 않은 폭풍우가 닥칠 것을 경고한다. 이런 면에서 자연이 때로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는 파괴적이었다. 번갯불의 번쩍거림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파멸시키는 대자연의 힘에 직면했을 때는 사랑, 생명, 모든 인간사가 보잘것없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런 대자연의 분노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 속에서 Gabriel은 위협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우선 자연의 미물을 통해 알려준 대자연의 위협을 파악하고 헛간으로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나 그들은 Troy의 권유로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상태였다. Gabriel은 이들의 도움 없이 보릿가리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한다.

이 폭풍우 장면에서 Casagrande는 세 가지의 자연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를 법칙적 자연은 미친 듯이 날뛰는 하늘의 절규인 폭풍우이고, 충동적 자연은 축제 때 만취된 채 코골며 자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기술적 자연은 방수천과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뢰침을 만들고 폭풍우와 싸우면서 자연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⁴⁵⁾ 여기서 Gabriel은 기술적 자연의 대행자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도덕적 교사도 안내자도 아니라 자연의 과정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자연과 협력하는 기술자(artist)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Mill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 하디가 창조한 인물이다.

이 폭풍우는 Bathsheba의 마음이 Gabriel에게 기울어지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 Bathsheba의 번덕 때문에 보릿가리에 큰 손해를 볼 뻔 했고 Troy의 무관심으로 농장이 위기에 처할 뻔 한 것을 Gabriel이 구했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멈춘 후 Bathsheba와 Gabriel은 헛간의 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Troy를 비롯한 사람들이 코골며 자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Gabriel의 성실성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한편, 남편인 Troy의 무능력을 발견한다. Bathsheba는 폭풍우 속에서 Gabriel과 힘을 합쳐 보릿가리를 나르면서 마음이 누그러져 Gabriel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Gabriel은 처녀 때는 박

45) *Ibid.*, p. 111.

정한 말을 하던 사람이 남의 아내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다정한 말을 하는 여자의 변덕을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는 여자의 약점-허영심, 충동, 변덕-을 알고도 꾸준히 사랑한다. 이는 그의 사랑이 Boldwood처럼 자기가 이상화한 여인에 집착하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그녀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을 잘 이해하는 성숙된 면을 보인다.⁴⁶⁾

한편 Bathsheba와 Troy는 충동과 이성이 갈등할 때 현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그들의 비극적인 과정도 비슷하다. Bathsheba가 경솔하게 장난편지를 보내어 Boldwood를 유혹한 것처럼 Troy는 Fanny를 유혹하고, Fanny가 죽었을 때 그녀에 대해 속죄의 뜻으로 무덤가에 화초를 심지만 물받이(gargoyle)에 썩겨 헛수고가 된 것처럼 Bathsheb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속죄하는 뜻으로 Boldwood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나, Boldwood가 Troy를 사살함으로 인해 그녀의 의도는 무마된다. 이런 두 인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미 저질러진 일은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는 (undo the done)’ 것이다.⁴⁷⁾ 이런 교훈을 가장 잘 인식한 인물도 Gabriel이다. 그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 한다.

Gabriel은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결점이 있는 Bathsheba보다 낫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Troy가 더 나아보이나 내면은 Gabriel이 더 나은 인간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내면의 강점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여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그렇다고 과거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⁴⁸⁾

하디는 이런 속성을 2장에서 Gabriel이 결혼 신청하러 갔을 때 “Bathsheba의 젊고 우아한 모습을 『실락원』의 악마(Satan)가 에덴동산을 틈새로 살짝 본 것처럼 그녀를 조감도로 내려다보고 있었다”(2장 13)고 표현하면서 Gabriel을 『실락원』에 등장하는 Satan과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처음 에덴동산을 볼 때의 Satan의 태도는 낙원을 상실한 데 대한 부러움과 후회로 얽혀 있었다. Gabriel의 바람은 Satan처럼 신

46) *Ibid.*, p. 107.

47) *Ibid.*, p. 101.

48) *Ibid.*, p. 106.

을 거부하기 위해 낙원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상황도 Satan과 같다. 왜냐하면 Satan이 낙원을 잃은 것처럼 Gabriel도 삶의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상실에 대해 Satan처럼 후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양지키는 개의 잘못으로 200마리 양이 몰살되어 빈털터리가 되어도 괴로움은 잠깐, 양치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농부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 정착한 곳이 Weatherbury이고 그 곳에서 우연히 Bathsheba를 만나게 된다. 그는 고향인 Norcombe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양치는 전문가이지만 다시 양치기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다. 그는 이전의 좋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환상이 없었다.⁴⁹⁾ 그는 현 상태 그대로 사물을 파악하고 잘못 된 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할 뿐이다.

Gabriel은 자연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자연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Casagrande의 말을 빌리면 “가브리엘은 자연에 대한 반항자도 모방자도 아니라, 그것들을 좋은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학생이다.”⁵⁰⁾ 이에 반해 Troy는 Bathsheba의 속성을 파악하여 아첨하면서 유혹하고, 시골 일꾼들의 술에 대한 욕구를 이해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만, 축제 때 그들을 만취하게 하여 농장을 위기에서 구하지 못한다. Boldwood의 Bathsheba에 대한 집착과 Bathsheba가 Boldwood에게 보상하려는 심리도 잘 이해하지만 그 심리를 알고 그들을 훼방하고 조롱한다. Troy도 인간의 심리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악하게 사용하고, Gabriel은 선하게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Gabriel은 자연의 결점과 손해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여자의 거절도 받아들여 참을성 있게 회복해간다. 그는 자연의 손실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에 직면하여 투쟁하는 적극적인 면도 보인다. 그는 Bathsheba뿐 아니라 Troy의 결점도 파악하여 Bathsheba에게 멀리하도록 충고한다. 또한 Gabriel은 Bathsheba와의 관계에서 그녀의 애정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Boldwood를 이해하여 사랑의 집착 때문에 내팽개쳐버린 그의 농장도 경영해 주고, Troy의 사살로 인한 사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나서기도 한다. Gabriel은 자연의 결점

49) *Ibid.*, p. 107.

50) *Ibid.*, p. 113.

을 알고 우연과 변화를 잘 이용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그는 양의 몰살로 인한 손실, Bathsheba의 거부도 묵묵히 받아들여 극기한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과 직면하고 Bathsheba, Troy, 그리고 Boldwood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⁵¹⁾

Gabriel 못지않게 자연을 잘 다루지만 현실에서 타인에게 선하게 또는 악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숲 속의 사람들』의 주인공 Giles는 자연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녀였던 Grace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 이러한 태도는 엄격한 극기심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 보수를 어떤 형태로든 기대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희생적 정신은 그의 강점이요 미덕이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현실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누가 더 감화를 주는지 견줄 수는 없다. Giles는 죽음으로써 타인에게 감화를 주고 Gabriel은 삶으로써 타인에게 감화를 주기에 둘 다 가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Gabriel은 현실에서 Bathsheba와 결혼하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Gabriel에게 더 큰 희망을 갖게 된다.

Gabriel도 처음에 Bathsheba 내면에 있는 허영심과 환상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외부로 찾아드는 자연에 대한 싸움도 벌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결실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이 힘들게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만 하다는 용기를 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혼 신청을 거절한 Bathsheba에게는 자기와 같은 시골사람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깊은 통찰력도 있고, 그의 개가 양을 몰살한 후 파산을 당하고서 “결혼하지 않기를 잘했다”(5장 33)라고 하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체념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기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킨다. ‘인위적’인 세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미덕만을 아낌없이 행동하고 진력하는 Giles에 비해, Gabriel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연과 인간을 구하려 했다.

이런 자연적 성격의 인물(natural characterisation)은 재미없는 인간일 수 있다. 이

51) *Ibid.*, p. 113.

상야릇한 특징도 없는 Gabriel도 공동체의 시각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자연물을 보듯이 그들의 기분에 따라 Gabriel에 대한 여론이 다르다.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때 그에 대한 평판은 '나쁜 사람'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들의 기분이 좋을 때면 '착한 사람' 쪽으로 치우쳤으며, 그들의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는 도덕성이 흐리멍텅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론에 관계없이 자연과 같이 변함없이 깨끗하게 버텨있으면서 Gabriel은 "Bathsheba와 Boldwood같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Troy와 같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는 도덕성이 없는 인간과 대결해야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인간(uninteresting)이 될 수밖에 없다"⁵²⁾고 Langbaum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Gabriel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22장에서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한 만찬회에 Boldwood가 참석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으레 따라다니기 마련인 끊어오르는 질투 때문에, Bathsheba에 대한 Boldwood의 거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그도 다른 인간의 성향과 똑같이 질투하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다른 작품에선 '쇠퇴는 자연의 법칙'(The law of decay)이라 하여 하디 인물들은 시작보다 끝이 더 안 좋다. 그러나 이 작품에선 쇠퇴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전된다. 교활한 Troy와 불안정한 Boldwood가 파멸에 이르고 Bathsheba는 성실한 Gabriel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위기에서 회복된다. 주인공인 Gabriel과 여주인공인 Bathsheba는 불행을 알고 극복했다. 때때로 자연은 적대적으로 다가왔지만 Gabriel은 능숙한 치료자(physician), Bathsheba는 환자(willing patient)로서 기꺼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그의 치료책을 따른다. 이리하여 Gabriel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광란의 무리 뒤에 깔리는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인간과 자연의 결점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⁵³⁾

인간의 다양한 약점들, 즉 Troy의 사악함, Boldwood의 정신 불안, Bathsheba의 변덕 등을 진단하고 Gabriel이 처방하게 했는데 그 처방법이 자기 부정(self-renunciation)과 과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unsentimental acceptance of the pastness of the past)이다.⁵⁴⁾ 이것만 보면 자연에 대한 태도가 수동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간과하지

52) Langbaum, p. 71.

53) Casagrande, p. 96.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즉 변경할 수 없는 환경과 고난은 묵묵히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자세다. 이 작품에서 빛어지는 비극적 고통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여 그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수동적 능동성'을 지닌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54) *Ibid.*, p. 96.

4. 공동체적 자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상호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공동체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식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외적으로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공동체는 스스로 생성, 전개, 소멸되는 것이기에 ‘자연’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하디는 소외된 계층의 대변자로서 사회와 개인의 참된 관계가 확립되길 바랐다. 그의 초기작품의 배경은 어린시절의 농촌 공동체였고 그 곳에 사는 인물은 생기 있는 시골 토박이였다. 하디는 작품을 쓸 때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만 주목한다. 그의 작품에는 세상에 태어나 부지런히 일하다 사랑을 하고 떠나 버리는 존재로서의 인물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한 생업을 갖고 소박한 욕구만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삶을 통해 보편적 사실을 나타낸다. 이 작품에서는 Weatherbury 공동체가 그들의 생업을 위한 일터가 되는데, 이러한 시골 공동체가 활기 있고 그 곳의 인물들이 성숙하려면 공동체와 어울리며 사는 것을 배울 때 가능하다. Gabriel은 개인의 열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고, Bathsheba는 공동체의 가치에 동화되는 과정을 전형화한 인물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는지를 살펴보겠다.

어떠한 파멸이 인간의 섬세한 정신을 덮치든 간에 파란 없는 삶을 여전히 이어나가는 보잘것없는 다수 인간들이 사는 곳인 Weatherbury는 그들이 매달려 사는 땅처럼 영원불멸할 것 같은 헛간, 그리고 이들의 평범한 삶 바로 그것이 현실성을 갖게 한다. 특히 22장에서 나오는 고딕풍의 헛간은 양치기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공동체의 힘(solidity)이 밀집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헛간에서 양털 깎는 장면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해준다.

이 헛간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에 건축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넓은 헛간은 교회와 성과 같은 중세의 대표적인 유물과는 달라서 아

니 그것들보다 우수하여 시간에 의해 침식당하는 일이 없는 전통을 구현하고 있었다. 400년 전의 액자에 끼워진 오늘의 이 그림은 연대의 차이에 의해서 암시될 것 같은 고대와 현대 사이의 그 현저한 대조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 도시와 비교하면 웨더베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도회인의 '그 때'가 시골 사람의 '지금'이다.(22장 126-127)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 Weatherbury공동체는 실리적이며 시간에 의해 침식당하는 일이 없는 유구함을 보여준다. 'Then'은 시골사람에게 있어 'Now'이다. 이 공동체는 털 깎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곳이고 그들은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았음을 말해 준다. Gabriel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양치기의 리더로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가졌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이 사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Gabriel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작품에서는 불멸의 공동체에 파멸과 정신적 불안이 침입해서 공동체의 관계가 파멸되는 국면을 맞기도 한다.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Boldwood와 Bathsheba, 도덕성이 결여된 Troy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장본인들이다. Boldwood는 무관심과 자기몰입의 대조적인 성격이 내면에 있어, 자기통제가 풀리면 왜곡된 극단적 성격으로 치달아 공동체에 절망적인 영향을 준다. Troy는 뻔뻔하고 어리병병하며 특히 공동체에 무관심한 태도는 혐오감을 갖게 한다. 한편 Bathsheba는 시골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골사람으로부터 늘 소문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인물이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폭풍우 장면, 화재 장면, 그리고 식중독 걸린 양을 구하는 장면에서 공동체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Gabriel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영향을 받아, 그녀도 자신을 위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이타주의적 성향으로 변모한다.

하디는 400년 전에 지어진 헛간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털을 깎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변화가 많고 연속성이 없는 도시적인 문명화된 삶과 달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Weatherbury 사람들의 삶이 과거와 현재의 변함없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자연세계와 문명세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디는 'the Dorsetshire Labourer'에서 도시에서 방문객이 낙후된 Dorset지방을 보

면 삶의 양식이 낙후되어도 거기엔 행복이 샘솟고 그런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 생길 것이라고 했다.⁵⁵⁾ 그러나 이런 행복한 유기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해체될 것임을 예측했다. 하디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The Dorsetshire Labourer'라는 에세이에서 과거를 향수하는 전원적인 관점과 미래를 보는 사회학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⁵⁶⁾

전원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의해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양상의 행복은 식물처럼 스스로 진화 한다”고 Darwin식 사고방식으로 말한다. 그리하여 재정상 나아지고 자유가 확장되자 도덕성도 해이되며 오랜 세월 동안의 즐거움인 공동체의 참여의식이 사라져갔다. 혜택이 있는 반면에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그 중에서 하디가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아쉬워한 것은 시골 환경뿐 아니라 전원 공동체 내에서의 끈끈한 정이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디가 공동체에 대해 우려한 것은 계급의 차이이다. 예전에도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제적 수준이 나아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빈곤감은 더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선 계급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다. 그가 땅을 잃고 그녀의 양치기가 되자 Bathsheba의 지위가 높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계급 차이가 그들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는다. Boldwood의 재산과 지위도 Bathsheba가 결혼할 이유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떠돌이 Troy도 Weatherbury태생이지만, 외부 세계에서 침입한 자로서 귀족의 사생아라는 소문으로 서로 간의 계급차가 최소화된다.

집안의 천사가 이상적인 여성상이던 빅토리아 시대에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Bathsheba의 모습은 남녀 간의 차이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지주대리가 손버릇이 나빠서 해고하고 Bathsheba자신이 직접 농장을 경영할 때도 일꾼들을 다루는 태도가 당당했다. 그 당시 팽배했던 억압받던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그려져서 남녀 간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23장에서 양치기들의 식사 분위기도 자유로워서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일꾼들에게서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장면

55) Langbaum, p. 72.

56) *Ibid.*, p. 67.

에서는 계급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Gabriel이 부르는 플루우트의 달콤한 가락에 더하여 Boldwood가 평상시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낮은 음을 첨가하면서 Bathsheba의 노래를 돕는 장면은 정답게 느껴지고, 만찬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든 사람들이 빈 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노래하며 담소를 나누는 풍경은 목가적이면서 아름답다. 그들은 함께 어우러져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해학이 있었다. 술잔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이름 붙인 것이든지, 이름을 쓸 때 Henery의 ‘E’는 필요없는 것이라고 가르쳐도 세레명이기에 Henry라고 쓸 수 없다고 고집하는 면은 코믹하면서도 그들의 어리숙함에 소박하고 우정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화재 진화 후 맥아제조소에서 모임을 갖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지주대리인이 해고당한 사실, Fanny가 집을 나간 일, Bathsheba의 양친의 내력 등을 알 수 있다. 이 곳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8장에서 음식에 먼지가 묻어있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들에게서 자연 친화를 느낄 수 있는 반면, 그들은 주인공 Gabriel이 떨어진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먼지를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싹싹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깨끗한 먼지면 괜찮아요(I never care about dirt in its natural state and when I know what sort it is, 8장 49)”라는 Gabriel의 이 말은 자연친화적인 삶을 나타내는 상징(metaphor)이 되는 구절이다.

하디는 무식해 보이는 하층민들이지만 세상사나 개인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그들의 입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들은 8장의 맥아제조소와 42장의 Buck’s Head 여관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예지가 드러난다. 8장에서 Jan Coggan은 수없이 많은 신랑의 시중꾼이나 입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속담에도 있듯이 주인이 바뀌면 규정도 변한다고 하잖아 (New lords, new laws, as the saying is!, 8장 60)”라고 하면서 문명을 비판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Joseph Poorgrass는 Fanny Robin의 시체를 마차로 인수해오는 중에 Buck’s Head 여관에 들렀을 때, “내세는 확실히 있는 거니까 지나치게 나쁜 짓은 하고 싶지 않아.(Your next world is your next world, and not to be squandered lightly, 42장 249)”라고 하면서 문명에 대해 냉소적으로 비판한다. Mark Clark는 낙천주의자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술의 즐거움을 아는 것은 천성이고 그 천성을 잘 즐겨야 한다면서(It is a talent the Lord has mercifully bestowed upon us, and we ought not to neglect it,

42장 248), Joseph Poorgrass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권한다.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이지만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솔함과 해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공동체의 기반이 있었다.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삶의 표준 같은 것이다. Gabriel은 Krammer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도덕적 표준(moral touchstone)이다. Joseph이 술을 마시다가 제 시간에 시체를 Weatherbury까지 가져가지 못함으로 인해 Gabriel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 것도 공동체의 기준에 반항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Gabriel은 자연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동요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그를 도덕적 표준으로 삼아 왔다.⁵⁷⁾ 그런 그가 화를 내는 유일한 장면은 Fanny의 시체를 가지러 간 Joseph이 도중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면서 질책할 때, Coggan은 그의 달변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서둘러 보았자 되살아 날 것도 아니고, 우리들도 내일 그녀처럼 죽을 지도 모르니 허둥대지 말자고 대응한다. 인생을 초연한 듯한 태도이다. 그들의 삶 속에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체질화 된 것이다. Krammer는 그들 공동체의 기반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공동체의 표준, 관습에 반대하면 Joseph처럼 날카롭게 훈육된다고 말하고 있다.⁵⁸⁾

이 작품에 나오는 무식하고 가난한 하층민들은 삶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감각이 있다. 이런 감각이 기쁨을 날카롭게 느끼게 한다. 만약에 하디의 작품에 늘 비극적인 분위기만 있다면 그다지 감동되지 않을 것이다. 시골 토박이들의 해학과 고뇌는 폭 넓은 정서의 폭으로 그리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슬픔도 느낄 수 있듯이, 간간히 나오는 아름다움의 순간과 즐거움의 장면으로 감정이 새로워 졌을 때, 비극을 보고도 쉽사리 눈물을 흘리게 된다. Weatherbury 공동체의 사람들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분명하여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Boldwood의 경우, 매사에 진지하게 살고 웃음을 모르는 경직된 인물이 과도한 욕망을 품을 때 파멸되고 마는 것처럼, 이들에게서 풍겨나는 해학과 유머가 없다면 욕망을 배출시킬 수 있는 출구가 없어 공동체에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울고 웃을

57) Dale Kramer,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 (Canada: Wayne State UP, 1975), p. 34.

58) *Ibid.*, p. 34.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하층민들은 중요하다.

이런 하층민들이 없으면 이 작품의 제목인 ‘광란의 무리’는 의미가 없다. 이 작품에서의 ‘광란의 무리’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체 사회상으로 볼 때 변영하는 빅토리아 조의 문명을 말하고, 또 하나는 Gabriel의 입장에서 볼 때 시골 농촌 사람들의 격정적인 삶을 의미한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⁵⁹⁾의 의미는 이기적 편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여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하층민들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만 주목했다. 그래서 때로는 광란의 무리가 되어 거칠기도 하다. 그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여신조차도 간혹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좋아할 것임에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 자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욕지거리를 마구 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빠뜨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8장 54)

위의 인용문에서 맥아제조서 노인이 하는 말을 보면 광란의 무리의 거친 삶을 알 수 있다.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 앞에서의 무력감을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거칠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노인은 태어난 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나이를 모르는 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듯 시간에 대한 관념은 없지만 자가 살아온 이력은 생생히 기억하는 것을 보면,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음이 분명하다. 이들은 투쟁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광란의 무리이지만 순수하다.

하디의 작품에서는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의 태도와 가혹한 물질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디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순수한 사람

59)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라는 제목은 18세기 시인인 토마스 그레이(Thomas Gray, 1716-1771)의 시, “Elegy Written in a Churchyard”에 나오는 아래의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광란한 군중의 더러운 싸움에서 멀리 떠나(Far from the madding crowd’s ignoble strife)
그들의 근실한 소원은 빛나갈 줄 몰랐고(Their sober wishes never learn’d to stray;)
차고 외떨어진 인생의 골짜기에 따라(Along the cool sequester’d vale of life)
그들 자신의 조용한 길을 걸어갔다.(They kept the noiseless tenor of their way.)

이 성공하지 못한 채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King은 순수한 인간이 존재해 있기만 해도 공동체에 자극을 주어 그들이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the innocent)는 고통 속에서 견디는 자체만으로도 공동체에 이바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⁰⁾ 이 작품에서의 Weatherbury공동체는 인간성을 가진 농촌 공동체이기에 인간성을 가진 Gabriel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디는 이런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공동체와 가장 바람직한 인물(community's best self)인 Gabriel을 연합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를 시도했다. 또한 그를 도덕적 표준(moral touchstone)으로 삼아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그들의 삶은 소박하고 코믹하다.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므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을 합치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여론을 통한 그들의 가치관을 통해 사회의 실상을 바라봄으로써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 8장에서 Gabriel의 일꾼들과의 생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양털 깎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시골에 계시고 악마는 세간 사람들과 함께 도회지로 가버렸다.”(8장 125)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디가 농촌 공동체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곳은 광란의 무리가 모인 것 같은 공동체지만 면면히 내려오던 전통적인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Gabriel의 영향을 받아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하디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60) King, p. 34.

V. 결 론

하디는 이 작품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자연, 즉 법칙적 자연, 충동적 자연에 잘 대처하여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Gabriel을 도덕적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Gabriel은 외부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법칙적 자연을 잘 통제하고 인간에게 내재해있는 본성인 충동적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욕망도 숙련된 솜씨와 지혜로 다스린다. 이리하여 인간의 목적 또는 자연의 운행 목적에 맞게 잘 적응하며 다루는 기술적 자연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공동체적 자연에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Bathsheba에게 감화를 준다.

하디 문학의 맥락에서 자연력도 초인간적인 내재의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이 자연력에 거역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나 되도록 생명력 있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 자세와 더불어,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히 도전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Gabriel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이른바 ‘수동적 능동성’의 도덕인 것이다.

Gabriel의 ‘수동적 능동성’이 자연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정리해 보자. 영원히 불변할 것 같은 자연, 거대함 또는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폭풍우 장면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Gabriel은 그의 지성을 사용하여 법칙적 자연을 잘 다스림을 알 수 있다.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플루우트를 연주하면서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에서는 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자의 약점을 알고도 여자 내면의 세계를 잘 이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숭고함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에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는 그의 사회성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연 뿐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수동적 능동성’의 자세로 대한다. 그는 과거

를 그리워하지도,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고 현실에 충실하게 산다. 자기가 생각하는 환상에 빠지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사물을 파악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다.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독수리가 날개 짓 하듯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수동적 능동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더 가치가 있다.

그의 능동적인 태도로 인해 양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어서 식중독에 걸린 양을 구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불, 물과 같은 법칙적 자연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여 이에 잘 대처하였다. 또한 비극적 사랑을 인내하면서 헌신함으로 인해 Bathsheba도 구하고 공동체도 구하여 이타적인 사랑의 송고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연의미를 느낄 줄 알며 플루우트를 연주할 줄 아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불품없는 외모와 가난으로 인해 탁월한 능력이 가려진다. 그리고 Bathsheba가 Gabriel에게 그녀의 고달픈 애정관계에 대해 상담할 때 정직하게 바른 충고를 해 준 게 그녀의 화를 돋우어 해고당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이 때 Gabriel의 지나친 순진성으로 인한 요령부득의 탓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Bathsheba가 그 충고를 받아들일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athsheba는 독립성이 강하고 재력도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여성에게 내재해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허영심, 충동성, 변덕 등과 같은 약점이 그의 애정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런 소모적 애정관계로 인한 시련으로 Bathsheba는 Gabriel을 의지하게 되고, Gabriel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재능은 그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에도 자기를 부인하여 동요하지 않고 파산을 당하는 실패 속에서도 과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수동적 능동성’은 그녀의 신뢰를 얻게 된다. 이런 Gabriel을 통해 그녀에게 내재해 있는 본질은 변화하기 어렵다 해도 표면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본능은 변하지 않아도 비이성적 성격은 자제되고 Gabriel에게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다.

욕망은 그대로 살아 있다 해도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었다면 ‘성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정관계로 인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돕는 Gabriel의 기

술적 재능과 ‘수동적 능동성’이 그녀를 이타주의적 성향으로 변모하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 나타난 삶의 무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Gabriel에게 현실은 Bathsheba를 비롯한 Troy, Boldwood, 시골 노동자들이다. 모두 약점이 많은 인물들이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인간은 Gabriel이다. 오직 한 사람 Gabriel만은 이러한 현실에 영향 받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타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희망의 존재로 나타난다. Gabriel은 고집스럽고 광대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양의 몰살로 인한 손실을 받아들여 회복한다. 또한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수수 방관적으로 따른 게 아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자연을 연구한 것이다. 그는 Bathsheba의 약점도 알지만 받아들이고 참을성 있게 약점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을 견딘다. Gabriel이 맥아제조소에서 공동체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재가 붙어있는 컵을 받아들면서, “먼지가 붙어 있어도 깨끗한 먼지라면 괜찮아요.”(8장 49)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약점이 많은 인물들을 경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⁶¹⁾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Gabriel은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디가 창조한 인물 중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 미물이나 바람소리를 통해 폭풍우가 다가올 징조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성과, 악기를 통해 정서를 순화하기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도 민감한 감성,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 조화를 이루며 살 줄 아는 사회성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⁶²⁾ 이러한 내적인 능력은 처음에 Bathsheba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애정관계로 인한 시련을 통해 가려졌던 그의 진가가 보이게 되었다. 시련은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힘이 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고통은 도덕적 성숙을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다. Gabriel은 간간히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에 ‘수동적 능동성’의 자세로 임하여 성실성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Bathsheba의 농장 뿐 아니라 Boldwood의 농장까지 맡아 경영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를 얻는다.

61) Dale Kramer,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9). p. 70.

62) Sumner, p. 56.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결말은 파멸로 치닫는 비극을 주로 다룬 하디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자연력에 의한 재난과 비극적 사건에도 굴하지 않는 ‘수동적 능동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는 Gabriel과 그의 영향과 감화를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진 Bathsheba의 자기 쇄신 과정을 예찬하면서 삶은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개선론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I. Text

Hardy, Thomas. *Far from the Madding Crowd*. Harmondworth: Penguin Book, 2000.

II. References

Butler, Lance ST John. *Thomas Hardy*. London: Cambridge UP, 1978.

Carpenter, Richard C. *Thomas Hardy*. Boston: Twayne Publishers, 1964.

Casagrande, Peter J. *Unity in Hardy's Novels*. London: Macmillan, 1982.

Cosslett, Tess. *The Scientific Movement and Victorian Literature*. London: The Harvester Press, 1982.

Cox, R. G. *Thomas Hardy: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Hardy, Florence Emily. *The Life of Thomas Hardy 1840-1928*. London: Macmillan, 1962.

Hardy, Thomas. *The Woodlanders*. Harmondworth: Penguin Book, 2000.

Hasan, Noorul. *Thomas Hardy: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London: Macmillan, 1982.

Howe, Irving.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85.

King, Jeannette.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Cambridge UP, 1978.

Kramer, Dale.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9.

Kramer, Dale.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 Detroit: Wayne State UP, 1975.

Langbaum, Robert. *Thomas Hardy in Our Time*. London: Macmillan, 1995.

- Lawrence, D. H. *On the Study of Thomas Hardy*. New York: Viking P, 1968.
- Pinion, F. B. *A Hardy Companion*. London: Macmillan, 1968.
- Sherman, G. W. *The Pessimism of Thomas Hardy*. London: Associated UP, 1976.
- Smith, Anne.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Vision Press, 1979.
- Sumner, Rosemary. *Thomas Hardy: Psychological Novelis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 김규연. 「Thomas Hardy의 자연과 인간」. 『영어영문학』 제37권 1호. 한국영어영문학 회, 1991.
- 근대영미소설학회. 『19세기 영국소설 강의』. 서울: 민음사, 1998.
- 김철수. 「*Thomas Hardy* 소설에 나타난 운명의 대행자」. 『영어영문학』 제28권 4호. 한국영어영문학회, 1982.
- 손진영. 「Hardy소설의 유머와 아이러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7.
- 심규세. 『토마스 하디 소설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2.
- 천승걸. 『자연주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Abstract>

The Meaning of Nature and Morality
in *Far from the Madding Crowd*

Hong, Geum-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s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nature and morality on the part of the hero in *Far from the Madding Crowd*, Gabriel in relation to four kinds of nature.

In *Far from the Madding Crowd*, it is possible to discern four senses of nature at work: nature-as-law, nature-as-impulse, nature-as-art, and nature-as-community. Nature-as-law is the creative and regulative power as the cause of all its phenomena. Nature-as-impulse is the inherent dominating impulse by which action or character is controlled. Nature-as-art is the skill to adapt the things of nature to the purposes of man, purposes that are nature's own. Nature-as-community is the rural world that maddens social relations.

In nature-as-law, the forces of nature like storms or fires are represented as malevolent but Gabriel makes an active effort against such things by using his intelligence. In nature-as-impulse, Gabriel has the ability to understand people who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are controlled by desire. Specifically, he achieves his end with Bathsheba by accepting her infirmity, and he suffers patiently the effects of it. In nature-as-art, Gabriel studies and repairs the misworkings of external nature and human nature. In nature-as-community, he is in harmony with the people in Weatherbury rural community.

The characters who act against nature's will end up in tragic situations, and the man who is in harmony with nature can remain still without living unhappily. Hardy suggests to us that one should admit the limits of ourselves, and then do one's best to control nature carefully by using intelligence, sensitivity, skill, and sociality. This is 'passive activity'.

In conclusion, *Far from the Madding Crowd* shows Hardy's melioristic view of life through Gabriel Oak whose morality allows him to control the nature and live a life in harmony with it.

